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윤민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f Art Psychotherapists o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Delinquent Youth

MinHee Yun

Department of Naturopathy,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예술심리치료사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초월의식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의식, 공감의식, 공동체의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초월의식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의식, 공감의식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소명의식, 초월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초월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예술심리치료사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of art psychotherapists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delinquent youth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115 art psychotherapists in Seoul City. The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Study results found that the vocational consciousness an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of art psychotherapis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delinquent youths, and the inner consciousness, empathy consciousnes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Second, it was found that art psychotherapist's inner consciousnes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ranscendence consciousnes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attitudes toward delinquent youths.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art psychotherapist's vocational consciousness an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delinquent youths, and the higher the inner consciousnes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the higher the attitudes toward delinquent youth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plans to improve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delinquent youths by art psychotherapists.

Keywords : Art psychotherapists, Workplace spirituality, Perception of delinquent youth, Attitude toward delinquent youth, Vocational consciousness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n-Hee Yun(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dbflsky100@naver.com

Received February 1, 2021

Revised March 3, 2021

Accepted May 7, 2021

Published Ma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의·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움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와 다양한 문제들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인 소진 등으로 예술심리치료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예술심리치료는 예술(Arts)과 치료(Therapy)의 합성어로 1800년대부터 예술과 치료가 병행이 되었다. 1803년에서 1813년 사이에 프랑스의 후작 Sade가 예술과 의학을 결합시켜 음악듣기, 춤추기, 긴장완화를 위한 목욕하기 등을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시행하였고, 19세기말에는 Dr. Blanch가 외부의 작가들, 환자들과 함께 문예토론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예술이 치료에 통합되기 시작하였다[2]. 현대에 접어들면서 예술심리치료는 치료와 학문으로 기반을 다지며 예술을 통한 심리치료로 점차 자리매김하게 되었다[3].

예술심리치료는 예술작업을 통해 심상의 외면화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정서적인 요소를 표현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억압했던 정신세계를 환기시키고 창작과정과 작품을 통해서 개인의 내재된 정신심리적인 갈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4]. 예술치료에는 이미지, 이야기하기, 의례(ritual), 상징, 음악, 무용, 시, 운동, 드라마, 시각예술이 있다. 이 결합은 인간 경험을 형성하게 하고, 정서적 경험과 반성적 경험에 있어 유지와 표현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와 의미를 확장하고 깊이 있게 하는데 사용된다고 하였다[5].

영성(Spirituality)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더 높고 깊은 존재인 초자아(super-ego)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조명되고 있다[6]. 영성은 자아(ego)이상의 큰 무엇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영원한 열망으로[7],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이자 감정, 의지, 신체적, 지적, 도덕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삶의 원리를 의미한다[8].

이처럼 영성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의 감수성에 기초한 지극히 개인적인 인식과 경험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과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다[9].

많은 학자들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영성이라는 것은 의미에 대한 탐구, 관련성, 고차원적 능력과의 관계, 연결성, 상호연결성, 자기이해, 신성함, 초월성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10].

최근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청소년의 범죄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범죄의 수위 또한 높아져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저연령화, 강력화 및 재범률 등의 증가는 소년원 학교가 갖고 있는 교정교화의 역할에 있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비행청소년들에게 알맞은 치료는 대상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구축되어야 한다[11,12].

비행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의 처벌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13].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이라 함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사회에 범죄 따위의 해가 되는 것을 하였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소년으로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인 학교 결석, 음주 따위의 범죄, 부모에 대한 불복종, 가출, 우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11].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인식이란, 어떤 대상을 감지하고 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식의 작용, 또는 이성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과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다[14]. 인식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아는 내용을 상황에 적용하기 때문에 지식보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다. 일반적으로 인식에 대한 개념은 내·외적인 경험을 반성하며 이를 자기 자신의 지식체제로 발전시키는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정확한 지식과 정보에 따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15].

또한, 인식은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같은 지식수준을 갖고 있더라도 긍정적인 사람은 태도나 행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부정적인 사람은 태도나 행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16].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있어 태도란, 어떤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따위가 겉으로 나타난 모습 또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준비태세로서의 마음가짐이다. 태도는 모든 사람들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이거나 창조적인 심리학적 과정으로,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유발되는 표현 또는 행동양식이다[17]. 그리고 태도란 개인과 관계되는 모든 사물과 사태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 또는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신적인

준비상태로 정의하고 있다[18,19].

비행청소년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에는 인지행동치료, 예술심리치료, 집단 상담으로 크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20].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비행청소년에 관한 해결 방법은 법적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교화가 우선시 되어야하기 때문에 예술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예술작업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요소를 표현하게 하는 예술심리치료사는 삶의 모든 차원에서 개인적인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 대상을 감지하고 분별하며 판단하게 된다. 이에 비행청소년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치료 대상자인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예술심리치료사들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2020년 00월 00일까지 서울시의 예술심리치료사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2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15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일터영성 23문항,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23문항,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순[6]이 사용한 일터영성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소명의식 5문항, 내면의식 5문항, 공감의식 5문항, 공동체의식 4문항, 초월의식 4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무숙[16]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맹이섭[21]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일터영성의 전체 신뢰도는 .938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체 신뢰도는 .836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의 신뢰도 또한 .902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 Classification | Number of questions | Cronbach α |
|----------------------------------|---------------------|-------------------|
| Workplace spirituality | 23 | .938 |
| Perception of delinquent youth | 23 | .864 |
| Attitude toward delinquent youth | 23 | .902 |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주요 변수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술심리치료사

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은 남자 49명(42.6%), 여자 66명(57.4%)으로 남자 보다 여자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34명(29.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40대가 32명(27.8%), 20대 이상이 20명(17.4%), 50대가 19명(16.5%), 60대 이상이 10명(8.7%)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는 유 82명(71.3%), 무 33명(28.7%)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34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이상-10년 미만인 27명(23.5%), 1년 이상-3년 미만인 22명(19.1%), 1년 미만이 13명(11.3%) 순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Classification | | Total(N=115) | |
|-----------------|------------------|--------------|----------|
| | | Frequency | Ratio(%) |
| Sex | Male | 49 | 42.6 |
| | Female | 66 | 57.4 |
| Age | 20s | 20 | 17.4 |
| | 30s | 34 | 29.6 |
| | 40s | 32 | 27.8 |
| | 50s | 19 | 16.5 |
| | Over 60s | 10 | 8.7 |
| Religion | Presence | 82 | 71.3 |
| | Absence | 33 | 28.7 |
| Marital status | Married | 65 | 56.5 |
| | Single | 50 | 43.5 |
| Work experience | Less than 1 year | 13 | 11.3 |
| | 1-3 years | 22 | 19.1 |
| | 3-5 years | 19 | 16.5 |
| | 5-10 years | 27 | 23.5 |
| | 10 years or more | 34 | 29.6 |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일터영성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일터영성 요인의 전체는 M=3.96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내면의식(M=4.04)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소명의식(M=3.95), 공동체의식(M=3.95), 초월의식(M=3.95), 공감의식(M=3.89)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n workplace spirituality

| Classification | N | Min | Max | M | SD |
|------------------------------|-----|------|------|------|-----|
| Vocation consciousness | 115 | 2.40 | 5.00 | 3.95 | .52 |
| Inner consciousness | 115 | 1.60 | 5.00 | 4.04 | .55 |
| Empathy consciousness | 115 | 2.60 | 5.00 | 3.89 | .59 |
| Community consciousness | 115 | 2.75 | 5.00 | 3.95 | .62 |
|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 115 | 2.50 | 5.00 | 3.95 | .51 |
| Total | 115 | 2.62 | 5.00 | 3.96 | .50 |

3.2.2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요인의 전체 점수는 M=3.81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ception of delinquent youth

| Classification | N | Min | Max | M | SD |
|----------------|-----|------|------|------|-----|
| Total | 115 | 3.09 | 4.83 | 3.81 | .38 |

3.2.3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의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 요인의 전체 점수는 M=3.73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attitudes toward delinquent youth

| Classification | N | Min | Max | M | SD |
|----------------|-----|------|------|------|-----|
| Total | 115 | 2.57 | 4.52 | 3.73 | .41 |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832, p<.01$). 또한 일터영성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814, p<.01$). 그리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요인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50,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 Classification | Workplace | Perception of delinquent youth | Attitude toward delinquent youth |
|----------------------------------|-----------|--------------------------------|----------------------------------|
| Workplace spirituality | 1 | | |
| Perception of delinquent youth | .832** | 1 | |
| Attitude toward delinquent youth | .814** | .750** | 1 |

** $p<.01$

3.4 일터영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

3.4.1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717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1.7%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520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55.313,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

명의식($\beta=.193, p<.05$), 초월의식($\beta=.414, p<.001$)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beta=.105, p>.05$), 공감의식($\beta=.076, p>.05$), 공동체의식($\beta=.153, p>.05$)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초월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Perception of Delinquent Youth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Unnormalization factor | | Standardization factor | t/p | Tolerance limit |
|--------------------------------|------------------------------|------------------------|----------------|------------------------|----------|-----------------|
| | | B | Standard error | β | | |
| Perception of delinquent youth | Constant | 1.157 | .168 | | 6.874*** | |
| | Vocation consciousness | .142 | .068 | .193 | 2.101* | .308 |
| | Inner consciousness | .073 | .064 | .105 | 1.152 | .311 |
| | Empathy consciousness | .050 | .072 | .076 | .690 | .212 |
| | Community consciousness | .096 | .066 | .153 | 1.458 | .234 |
| |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 .311 | .063 | .414 | 4.919*** | .366 |

* $p<.05$, *** $p<.001$

3.4.2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59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59.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592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39.79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면의식($\beta=.275, p<.01$), 공동체의식($\beta=.348, p<.01$), 초월의식($\beta=.209, p<.05$)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beta=-.085, p>.05$), 공감의식($\beta=.154, p>.05$)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초월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Influence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Attitudes toward Delinquent Youth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Unnormalized factor | | Standardized factor | t/p | Tolerance limit |
|----------------------------------|------------------------------|---------------------|----------------|---------------------|----------|-----------------|
| | | B | Standard error | β | | |
| Attitude toward delinquent youth | Constant | 1.176 | .188 | | 6.262*** | |
| | Vocation consciousness | -.066 | .075 | -.085 | -.881 | .308 |
| | Inner consciousness | .205 | .071 | .275 | 2.878** | .311 |
| | Empathy consciousness | .107 | .080 | .154 | 1.333 | .212 |
| | Community consciousness | .232 | .073 | .348 | 3.156** | .234 |
| |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 .168 | .071 | .209 | 2.378* | .366 |

*p<.05, **p<.01, ***p<.0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와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초월의식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감의식, 공동체의식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717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1.7%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520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55.313,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명의식($\beta=.193, p<.05$), 초월의식($\beta=.414, p<.001$)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beta=.105, p>.05$), 공감의식($\beta=.076, p>.05$), 공동체의식($\beta=.153, p>.05$)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초월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초월의식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공감의식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59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59.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592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39.79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면의식($\beta=.275, p<.01$), 공동체의식($\beta=.348, p<.01$), 초월의식($\beta=.209, p<.05$)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beta=-.085, p>.05$), 공감의식($\beta=.154, p>.05$) 요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초월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에서 공감의식 요인을 제외한 소명의식, 초월의식 요인은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초월의식 요인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예술심리치료사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예술심리치료사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예술심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행청소년의 교화에 더욱더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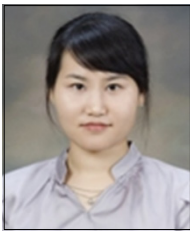
References

- [1] J. H. Choe, S. Y. Moon, H. W. Nam, "The Direction of the Arts-Psychotherapy in the Untact Society",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16, No.4, pp.47-78, 2020. DOI: <https://doi.org/10.32451/KJOAPS.2020.16.4.047>
- [2] H. E. Kim,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Juvenile Training School Students' Personality - Focusing on Aggression, Anxiet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p.8-48, 2002.
- [3] J. E. Lee, *Effects of Arts Psychotherapists' Professional Quality on Counter 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pp.9-26, 2014.
- [4] J. S. Kim, *Expressive arts psychotherapy for PTSD*, p.135. Seoul: Korean Association of Expressive Arts Psychological Counseling, 1999.
- [5] Y. T. Cho, "The Challenges of Art Psychotherapy in Korea", *The Korean Arts Psychotherapy Association Spring Conference*, The Korean Arts Psychotherapy Association, pp.1-13, April 2008.
- [6] K. S. O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Spirituality, Resilience Elasticity, 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Gwangju University, pp. 16-28, 2019.
- [7] P. J. Palmer, *The Courage to Teach*, A Translator: J. I. Lee, p.320, Seoul: Hanmunhwa, 2005.
- [8] H. G. Kim, *Meta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Spirituality and Related Variables: Focused on Workplace Counseling*,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pp.13-61, 2016.
- [9] J. Marques and S. Dhiman, R. King, "Spirituality in the workplace: Developing an integral model and a comprehensive definition", *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Cambridge*, Vol.7, No.1, pp.81-91, 2005.
- [10] L. M. Tucker, "Quest for wholeness: Spirituality in teacher education", *Education for Meaning and Social Justice*, Vol.23, No.2, pp.1-10, 2010.
- [11] E. A. Choo, *The Effect of Neurophysiological Social Engagement System DMT on Physical-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oon Chun Hyang University, pp.6-15, 2020.
- [12] E. A. Choo, H. W. Nam, "A Case Study on Dance Movement Therapy Experience Among Youths in Juvenile Training School",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15, No.1, pp.71-93, 2019. DOI: <https://doi.org/10.32451/KJOAPS.2019.15.1.071>
- [13] S. Y. Lee, *A study on the integrated therapeutic program for juvenile offenders : focusing on Gestalt theor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pp.7-33, 2009.
- [14] S. J. Kang, *A Study on Decisive Factors of the Social Leaders' Perception of the Disabled*,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eoul Christian University, pp.8-36, 2008.
- [15] Y. G. Woo, Y. H. Lee and T. H. Kown, H. G. Kim, J. S. Yoo, A Study on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p.336,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04.
- [16] M. S. Lee, *A Study on Disability Awareness, Sensitivity to Disability Human Rights and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Changwon University, pp.41-53, 2019.
- [17] R. Antonak, H. Livneh,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s person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Vol.22, No.5, pp.211-224, 2000. DOI: <http://dx.doi.org/10.1080/096382800296782>
- [18] G.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p.537, Addison-Wesley, 1954. DOI: [https://doi.org/10.1002/1520-6696\(200023\)36:4<489::AID-IHBS13>3.0.CO;2-N](https://doi.org/10.1002/1520-6696(200023)36:4<489::AID-IHBS13>3.0.CO;2-N)
- [19] S. S. Ha, *The Effects on Project Approach to Ordinal Students' Attitude Change and Attitude Duration to ward Disability Acceptabilit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pp.72-91, 2009.

- [20] H. K. Son, *A study on Inner Insight Experience of a Juvenile Delinquent using Guided Imagery and Music(GIM) Program*,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Asia Life University, pp.5-13, 2015.
- [21] Y. S. Maeng, *The Influence of People's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Foreign Athletes' Playing in Professional Sports on Their Multi-Cultural Accommoda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pp.39-47, 2012.
-

윤 민 희(Min-Hee Yun)

[정회원]



- 2018년 8월 :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건강과학산업학과 (자연치유산업학 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박사 과정
- 2020년 10월 ~ 현재 : 연세이너힐 의원 도수치료실

〈관심분야〉

자연치유, 건강과학, 예술심리치료